

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정책을 국민 앞에 선보일 시간, 면밀한 점검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것

- 기획예산처 제8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-

- 갑질 근절 교육, 보고서 양식 통일, 출장 최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직원 재충전을 적극 배려할 것을 지시
-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, 청년 패키지 대책 등 중점과제 마무리와 주요 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를 주문

기획예산처는 '26.8.11.(화) 14시 정부세종청사 5-1동 4층 대회의실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.

박홍근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면서, 그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조직문화 개선의 의지를 다졌다. 갑질 근절 교육, 보고서 양식 통일, 출장 최소화 등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,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·점검하고 추가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것을 지시하였다. 또한 간부들부터 솔선하여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, 직원들이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것을 당부하였다.

이어서 박 장관은 “8월은 그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온 과제들을 국민들께 선보이는 중요한 시점”이라고 하면서 8월 중 당면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.

우선, '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'26~'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언급하면서,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마지막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여줄 것**을 당부하였다. 아울러, “모든 정책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만큼, **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에도** 각별히 노력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또한, 박 장관은 **청년세대 지원**을 위한 **패키지 대책**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, “청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, **교육과 일자리, 자산, 주거, 출산·양육** 등에 이르기까지 **총총한 지원**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 특히,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**결혼 페널티 해소**에도 신경쓸 것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, 9월 정기국회 개회 시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, 공익신고장려기금법,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**중점추진법안**에 대해 **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, 법안 발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**을 주문하였다.

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8월 3주차 실시 예정인 **을지연습**을 언급하면서, 기획처 출범 이후 첫 을지연습인 만큼 **비상대응 체계와 역할**을 점검하는 실질적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류승수 (044-214-1410)
		담당자	서기관	이홍섭 (leehs86@korea.kr)
			사무관	김나현 (nahyun5959@korea.kr)
			주무관	문강기 (bbor200@korea.kr)